

# 禮敎의 가늠자

## –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 지리지 ‘風俗’조의 검토 –

김지영 \*

- 
- |                                    |                         |
|------------------------------------|-------------------------|
| 1. 머리말                             | 4. 풍속을 바꾸는 경쟁: 조선후기 경상도 |
| 2. 조선전기 경상도 지역의 풍속 기술              | 지역 풍속조의 변화              |
| 3. 풍속 관찰의 관점: 政令의 통치에서 禮<br>敎의 정치로 | 5. 맷음말                  |
- 

**초록:** 이 글은 지리지 서술 내용의 변화를 통해 조선시대 지배 또는 통치, 정치, 治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조선적 문화 형성의 경로를 읽어내려는 시론적 작업이다. 본격적인 분석 대상은 지리지의 여러 항목 중 ‘풍속’조이다. 풍속 항목은 조선시대 지리지 편찬자들이 의도적으로 삽입시킨 것이며, 삽입된 뒤에도 기술 내용이 고정되지 않고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1425년 『경상도지리지』에는 풍속 항목이 없지만, 그 서두에서 경상도 66개 군현 풍속을 기술하였다. 이 최초의 풍속 기술은 조선후기인들의 진술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달랐다. 문풍이 드높고 순후한 풍속을 가진 고을이라는 조선후기적 이미지와 달리, 상당수 고을이 무예를 중시하며 강하고 사납거나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경상도 지역 44개 고을의 풍속만 기술하였지만, 풍속 기술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 때 관찰한 고을의 풍속은 고을 고유의 민속이라기보다는 고을 전체가 가진, 타고나거나 자연스럽게 배어들어 있는 문화적 취향이나 품성이었다.

이후 전국지리지나 고을 읍지들에서도 풍속 기술들이 수정되어갔다. 지방지의 편찬자들은 개인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는 태도를 비판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풍조를 격려하며 풍속 항목을 기술했다. 신유학의 인간과 사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을의 풍속을 바라볼 때 투영되었고, 일정한 문화적 기준 “검소하고 예의, 의리를 알고 학문을 알며 다투지 않는 문화”의 성취 여부가 풍속조 서술의 기준이 되었다. 다스림[治]은 단순한 관료 행정이 아니라 포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팔적 교육으로서의 예교였고, 고을 풍속은 다스림의 방향을 가늠하고 성취를 평가하는 지표로 여겨졌다. 지역인들도 사욕보다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올바름[道義]을 중시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인정받고자 했다. 17세기 지역인에 의해 작성된 읍지에서는 이러한 신유학적 문명론의 기준에서 벗어난 기왕의 고을 풍속 기술에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고을 풍속을 바꾸는 경쟁은 전 도에 걸쳐서 일어났다.

각 지역 읍지의 풍속 항목은 예교주의적 노력들의 성취 정도와 지속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것 대였다. 조선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 사 모두 나라가 존속하는 마지막까지 고을의 풍속을 고을의 ‘治’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지표라는 관점을 버리지 않고 예교의 가늠자로서 풍속 항목을 서술하였다. 19세기 초반에 이르면 경상도 거의 모든 지역의 풍속 항목에서 사납고 다투는 이미지는 사라졌다. 각 고을들은 조선의 문명적 표준을 내면화했고,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삼았다.

핵심어 : 지리지, 풍속, 경상도, 조선의 문명적 표준, 신유학

## 1. 머리말

西北 사람과 영남 사람은 아득하기만 하구나. 영남 사람의 순후한 풍속은 공맹의 고장보다도 많이 남아 있고, 서북 사람의 억세고 사나운 풍습은 중국의 朔岱 지방보다도 더 쳐준다. 국가에서 疏通의 정사를 행함에 있어 마땅히 이 사람들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우리 열성조께서 염려하고 돌보아 온 사람들이니, 兩銓으로 하여금 거두어 등용하도록 하라.<sup>1)</sup>

이 인용문은 정조가 즉위 직후 그동안 소외되어 온 영남과 서북 지역 인재 등용을 천명한 유명한 전교이다. 지역 인재 탕평 정책의 출발을 알리는 이 글에서 정조는 영남과 서북의 인재를 등용할 근거로 공자와 맹자의 고장보다 더한 영남 지역의 순후한 풍속과 중국 泰山 일대 사람들보다 더한 서북 지방의 억세고 사나운 풍습을 들었다. 왜 정조는 지역의 풍속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지역 풍속 인식은 당시 조선의 일반적 인식에 부합하는가. 일반적 풍속 인

1) 『日省錄』 정조 즉위년 6월 20일 己未. “逖矣西北嶺南人. 淳厚之風 尚餘於鄒魯 勁悍之習 最稱於朔岱. 國家疏通之政 宜先於此等人. 亦我列朝顧念撫摩者也 其令兩銓收用.”

식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던 것일까.

조선시대 지리지 자료는 전국지리지의 경우는 조선 정부의 지방 통치를 위한 자료로, 군현 읍지는 지방관의 지역 통치를 위한 자료 또는 지역 사족의 자기 현양을 위한 자료로서 인식되어 왔다. 전자의 견해 위에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전국 단위의 일관된 정보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된 전국지리지의 구성과 실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2)</sup> 이들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지리지를 정치·사회·경제·군사·인물·예속·시문·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 파악하고, 편찬 시기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보완되었는지에 주목하여 전국지리지 편찬의 의의를 규명하였다. 한편 국가에 의한 전국지리지 외에 각 지역의 수령이나 지방지식인들이 편찬한 군현 읍지가 주목되었다. 국가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규식에 따라 제한된 정보만 수록한 전국지리지와 달리 지역거주자가 자신의 고장에 대해 설명한 읍지야말로 지역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지지의 본래적 형태였고, 읍지의 편찬으로 중세 지지의 체계가 정립된 것으로 보았다.<sup>3)</sup>

이러한 지리지는 편찬 형태와 주체와 관계없이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보'를 담고 있다고 여겨졌다. 지리지를 통해 중앙의 기록을 통해서는 얻기 힘든 지방의 사회경제적·군사적·행정적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정보들이 연구에 활용되었다. 한편 지역이 배출한 인물, 지역이 기억하는 고적, 지역에 편재한 학교 등의 기록은 각 지역의 역사의식이나 유교문화화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여겨져 개별적으로 연구에 활용되어왔다.<sup>4)</sup> 지리지를 포함한 여지류를 지방 나름의 역사를 구성할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탐색되기도 했다.<sup>5)</sup>

2) 양보경,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배우성, 1996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 85 ; 서인원, 2002 『조선초기 지리지 연구-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혜안 ; 양진석, 2013 「18세기 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의 추적」, 『규장각』 43.

3) 양보경, 위의 논문; 1987 「조선시대 사찬읍지 편찬에 대한 연구」, 『국사관논총』 81.

4) 박주의 읍지 인물조를 활용한 旌表政策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근 경상도 읍지의 효자, 열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경상도 지역에서의 유교 윤리의 확산 과정과정과 그 지역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박주, 2016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사 분야에서의 지방지 연구들은 조선시대 지방지 연구에도 참조할만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사에서 송대 이후 전통적인 圖經을 대신하는 지방 기록으로 새롭게 등장하여 명·청대를 지나는 동안 비약적으로 늘어난 지방지[方志, Local Gazetteers]는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피터 볼은 송대에 등장한 지방지, 문화지리서, 지역 인물전이나 詩文 選集 등 새로운 지방 자료들이 과거의 지방 자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주목하였다. 도경을 중앙의 관료행정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로 보고 지방지를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지배층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로 보았던 선행 연구와 달리<sup>6)</sup> 피터 볼은 송대 지방지 역시 외부자로서 지역에 온 관료들의 주도나 후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도경과 차이가 없지만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sup>7)</sup> 지역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고 지역의 실상을 파악하는 자료로 圖經과 같은 지방 자료가 산출되었다면, 지역 자체에 누적된 문화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 문화를 바꿔온 지역의 인물과 그들의 文에 관심을 두고 그 변화상을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가 지방지라는 것이다. 지역을 삶과 정치, 정체성의 토대로 여기는 새로운 지배엘리트들의 등장이 이러한 지방지와 지방지의 지역사 서술 관점과 관련되었다고 보았다. 책의 명칭이나 분량, 책의 편찬자가 관료냐 아니냐와 같은 외적인 양상의 변화보다는 내밀한 서술의 태도와 자료와 반영되어 있는 서사의 변화를 추적하여 내린 결론이다. 지방지라는 자료의 지성사적 의미를 풍부하게 해석한 이 연구 이후 지방지가 어떻게 지방 사족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출판되고, 읽혔는지를 통해 지역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독해한 연구도 제출되었다.<sup>8)</sup>

5) 김태웅, 2017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승람의 읍사 자료 비교 활용」『규장각』 51.

6) 선행 연구의 관점은 중앙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관찰지리지와 지방에 이해관계를 둔 관료나 사족의 관점을 반영한 사찰지리지로 구분해 온 조선시대 지리지 분류 전통과도 맥이 닿는다.

7) Peter K. Bol, 2001, "The Rise of Local History: History, Geography, and Culture in Southern Song and Yuan Wuzhou",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61, No.1, pp.37-76.

8) Joseph Dennis, *Writing, Publishing, and Reading Local Gazetters in Imperial China*,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지방지에 대한 독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조선시대 역사연구에서 지방지 자료의 활용의 관점은 여전히 전통적이고 단편적이다.

이 글은 지리지의 서술 내용의 변화를 통해 지배 또는 통치, 정치, 治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조선적 문화 형성의 경로를 추적하는 새로운 지리지 활용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은 지리지의 여러 항목 중 풍속조이다. 풍속조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우연적이었다. 조선후기를 자료를 주로 보고 있는 필자에게 정조가 말한 바 '영남은 순후한 고장'이라는 언급은 너무 흔해서 '영남은 영남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 또 현재 규장각에 남아있는 지방 읍지의 상당수가 19세기 읍지들인데, 그 읍지들에 기록된 영남 풍속조는 '소박하다', '순후하다', '검소하다', '예스럽다'는 등 고만고만한 평가들 뿐이었기에 지리지의 여타 기록들에 비해 주목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올라가는 읍지들을 살펴보다가 서북 지역에서나 볼 '사납다', '억세다', '화려함을 송상한다', '장사를 좋아한다' 등의 풍속 기술을 보게 되었다. 더 시기를 올라가면 더 흔하게 이런 기술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여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더 앞선 시기에는 지역의 풍속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풍속 항목은 조선시대 지리지 편찬자들이 의도적으로 삽입시킨 것이며, 삽입된 뒤에도 기술 내용이 고정되지 않고 상당한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이 변화에 일관된 방향성이 있고, 상당히 분투하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게 되었다. 과연 왜 조선시대 지리지에는 '풍속' 항목이 있게 되었고, 이 항목을 통해 보고자 한 지방의 면모는 무엇인가. 왜 이런 방식으로 지방의 면모가 파악·기술되는가. 파악된 지방의 면모는 시대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나아가 이러한 변화 전체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하 글에서 조선시대 지리지 중 경상도 지역 지리지를 중심으로 이상의 질문들에 답해보려 한다.<sup>9)</sup>

---

1100-1700,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5.

9) 조선시대 지리지 풍속조 연구는 팔도 전체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전 지역의 시기별 변화를 모두 추적하기에 대상 자료가 너무 방대하여,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경상도 지역

## 2. 조선전기 경상도 지역의 풍속 기술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 지리지에서 고을의 풍속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最古의 관찬지리지로 알려진 『慶尙道地理志』에는 풍속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도 전체의 현황을 개관한 서두 부분에서 “도내 각 관의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 하천이나 샘의 깊고 얕음, 풍속이 승상하는 바를 아울러 글로 적을 일”이라는 지시 사항 아래에 소속 66개 군현 전체의 풍속에 대해 기술하였다.<sup>10)</sup> 그 내용을 아래 〈표 1〉에 정리하였다. 군현의 연번은 『경상도지리지』에 수록된 순서를 따랐다. 그 기술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자.

〈표 1〉에 기재된 것을 보면 거제, 경산, 경주, 고성, 군남, 군위, 대구, 동래, 문경, 봉화, 산음, 상주, 순흥, 신녕, 안동, 영산, 영일, 영주, 예안, 예천, 용궁, 의성, 의흥, 인동, 지례, 진보, 진해, 청도, 청송, 초계, 칠원, 하동, 하양, 함안, 함양, 합천, 현풍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겸소하고 겸박하며 순후한 풍속을 가진 군현이 많다. 15세기에도 앞에서 살펴본 정조의 언급과 동일한 이미지의 경상도 모습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의 고정된 이미지와 다른 풍속조 기술도 눈에 띈다. 진주나 성주, 선산, 김산, 개령 등의 풍속은 경상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화려함을 승상한다”거나 “사치를 승상한다”고 하였다. 문풍이 드높았던 경상도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무예를 승상하는 지역도 여러 곳이다. 문과 무는 국가에서 공히 중시하였고, 무반으로의 진출이 양반 사족 지위의 재생산 방법의 하나였다는 사실, 경상도 바닷가와 내륙의 요해처에는 무비가 대단히 중요하여 관군 중심의 지역 방어체계를 갖

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타 지역과의 비교는 후고를 요한다.

10) 『慶尙道地理志』(奎 10007) 20-25면, “道內各官 土地肥瘠 水泉深淺 風氣寒暖 俗所尙 并以開寫事”. 경상감사 하연이 1425년 중앙에서 내린 규식에 따라 10부의 도지리지를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경상감영[경주부]에 보관하기 위해 추가로 서문을 붙인 1부를 제작하는데, 본서가 감영에 보관하기 위해 작성한 원본 책자이다.(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 종합정보 싸이트, 김선경 해제 참조)

추려 노력하였던 바, 이러한 풍속 기술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sup>11)</sup> 그런데 진주의 '強敏', 김해에서의 '強簡', 고령의 '強武'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민첩함, 간 솔함, 무를 숭상함 등의 지역성 평가에 '강함/억셈'이라는 수식이 붙는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 강함이나 억셈은 개인하거나 쉽게 꺼이지 않는 성질 등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거창이나 기천(풍기)의 '強狼', 장기나 안음, 삼가, 의령의 '強悍', 양산의 '強戾' 등은 어떤가. 강하고 힘센 것을 좋아하고 현실적이며 실용적 삶의 지향으로 삼는 요즘 기준으로는 '강함'의 수식어 또는 서술어가 어떤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납다", "거칠다"는 것과 만나게 되면 순박하고 예스러운 다른 고을들과 무언가 구별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거칠고 사나움을 숭상하고 쟁송하기를 좋아한다는 창원이나 싸우기를 즐긴다는 밀양이나 안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다투기를 좋아한다"거나 "쟁송하기를 즐긴다"는 풍속조 기술은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확연하게 드러낸다.<sup>12)</sup> 물론 이 평가적 서술이 경상도 여러 고을의 지방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외부자들의 관찰이고, 피치자의 입장에서는 지배의 시각이 반영된 서술이기에 고을의 진면목이 아니라 일종의 편견에 의해 왜곡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부당한 정세에 항의한다거나 지역민의 입장에서 저항한 것을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입장에서 불편하게 여기고 지역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일 수도 있다. 또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검소하고 순박하다는 서술 역시도 가난이나 억울함을 참아내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화하며 인내와 굴종을 내면화하게 만들려는 악의가 숨어있을 수도 있다. 어떤 해석을 유보하고 일단 이 『경상도지리지』의 풍속 기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15세기 초반의 경상도에는 조선후기인들의 진술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검소함을 숭상하

11) 조선전기 국방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 속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지역 관군 체계와 임진왜란 때 경상도 지역 의병활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노영구, 2007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역사와 현실』 64, 33-64면 참조.

12) 물론 여기에서 '부정적'이란 공존적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문명세계의 지표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문화관을 고려한 평가어이다. 싸움과 다툼이야말로 생존의 절대적 방식인 역 사세계였다면 동일한 풍속서술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녔을 수도 있다.

고 순박하고 도타운 풍속과는 상당히 다른 풍속을 가진 많은 지역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후 도지나 읍지들에서 경상도의 풍속은 어떻게 관찰되고 있었을까.

〈표 1〉 1425년 『경상도지리지』 기술 풍속 내역

연번	군현명	풍속 기술_원문	풍속 기술_번역문
1	경주	俗尙淳儉 力農好學	순박하고 검소함을 숭상하고 농사에 힘쓰고 배움을 좋아한다
2	안동	俗尙務農桑 重禮讓且節用	농상에 힘쓰고 예양과 절용을 중시한다
3	상주	俗尙簡嗇 好學問	질박하고 아끼는 것을 숭상하고 학문을 좋아한다
4	진주	俗尙強敏富麗 崇文好武	강하고 민첩하며 부유하고 화려함을 숭상한다. 문을 숭상하고 무를 좋아한다
5	성주	俗尙華麗 崇文好武 善女功	화려함을 숭상하고 문을 높이고 무를 좋아한다. 여공을 잘한다
6	김해	俗尙強簡 力農好學	억세고 간소하며 농사에 힘쓰고 배움을 좋아한다
7	영해	俗尙武藝 好歌舞	무예를 숭상하고 가무를 좋아한다
8	순흥	俗尙勤儉	근검을 숭상한다
9	창원	俗尙驟暴 爭訟力農	거칠고 사나움을 숭상하며 쟁송하기를 좋아하고 농사에 힘쓴다
10	밀양	俗尙力農好學 然好鬪爭	농사에 힘쓰고 배움을 좋아하나 싸우기를 즐긴다
11	선산	俗尙華麗 好學問	화려함을 숭상하고 학문을 좋아한다
12	양산	俗尙強戾力農	억세고 사나움을 숭상하고 농사에 힘쓴다
13	합천	俗尙儉率力農	검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하며 농사에 힘쓴다
14	울산	俗尙武藝 好商賈	무예를 숭상하고 상업을 좋아한다
15	예천	俗尙平易	겸손하고 단출함을 숭상한다
16	영천(영주)	俗尙儉率務蠶桑	겸박함을 숭상하고 양잠에 힘쓴다
17	영천(영천)	俗尙平易 好學問	평이함을 숭상하고 학문을 좋아한다
18	청도	俗尙儉率 務蠶桑	겸박함을 숭상하며 양잠에 힘쓴다
19	함안	俗尙儉率	겸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20	초계	俗尙儉率力農	겸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하며 농사에 힘쓴다

21	홍해	俗尙武藝	무예를 숭상한다
22	함양	俗尙謹慤力農	삼가고 성실함을 숭상하고 농사에 힘쓴다
23	김산(김천)	俗尙華麗 力農 善女功	화려함을 숭상하고 농사에 힘쓰고 여공을 잘한다
24	대구	俗尙儉率務蠶桑	검박함을 숭상하고 양잠에 힘쓴다
25	곤남	俗尙儉率	검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26	청송	俗尙儉率	검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27	의성	俗尙儉 務蠶桑	검소함을 숭상하고 양잠에 힘쓴다
28	영덕	俗尙武藝	무예를 숭상한다
29	경산	俗尙儉率	검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30	동래	俗尙恭儉	공손하고 검소함을 숭상한다
31	고성	俗尙儉率	검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32	거제	俗尙儉率	검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33	고령	俗尙強武力農	강함과 무예를 좋아하고 농사에 힘쓴다
34	개령	俗尙侈靡力農	사치를 숭상하고 농사에 힘쓴다
35	창녕	俗尙氣概 好學問	기개를 숭상하고 학문을 좋아한다
36	언양	俗尙強儉力農	강하고 검소함을 숭상하며 농사에 힘쓴다
37	합창	俗尙強嗇	억세고 아끼는 것을 숭상한다
38	용궁	俗尙和睦	화목함을 숭상한다
39	사천	俗尙武藝	무예를 숭상한다
40	거창	俗尙強狼	억세고 사나움을 숭상한다
41	예안	俗尙節儉 務蠶桑	절검을 숭상하고 양잠에 힘쓴다
42	하양	俗尙儉率	검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43	하동	俗尙儉率	검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44	기장	俗尙武藝	무예를 좋아한다
45	장기	俗尙强悍	억세고 사나움을 숭상한다
46	영산	俗尙平易	평이함을 숭상한다
47	진성(단성)	俗尙強武	억세고 무예를 숭상한다
48	기천(풍기)	俗尙強狼	억세고 사나운 것을 숭상한다
49	인동	俗尙節儉 務蠶桑	절검을 숭상하며 양잠에 힘쓴다
50	현풍	俗尙儉嗇	검소하고 아끼는 것을 숭상한다
51	봉화	俗尙節儉 務蠶桑	절검을 숭상하고 양잠에 힘쓴다

52	의홍	俗尙鈍朴	어리석은 듯 순박함을 숭상한다
53	신녕	俗尙儉率	俭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54	영일	俗尙儉率	俭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55	문경	俗尙儉率	俭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56	칠원	俗尙儉率	俭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57	군위	俗尙儉率	俭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58	산음	俗尙簡質	간소하고 질박함을 숭상한다
59	안음	俗尙强悍 好鬪爭	억세고 사나움을 숭상하고 싸움을 좋아한다
60	지례	俗尙儉率	俭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61	청하	俗尙武藝	무예를 숭상한다
62	삼가	俗尙强悍	억세고 사나움을 숭상한다
63	의령	俗尙强悍	억세고 사나움을 숭상한다
64	진해	俗尙儉率	俭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65	진보	俗尙儉率	俭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한다
66	비안	俗尙愚頑	어리석고 완고함을 숭상한다

위의 『경상도지리지』를 비롯한 팔도 도지는 1432년(세종14) 『新撰八道地理志』로 완성되었고,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의 바탕이 되었다.<sup>13)</sup>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풍속 항목을 따로 두지 않았다. 풍속에 관한 기술도 거의 되어 있지 않다. 팔도 중에서 20개 고을에 대해서만 풍속을 기술하였고, 경상도의 경우에도 66개 고을 중 경주,<sup>14)</sup> 선산,<sup>15)</sup> 성주,<sup>16)</sup> 안동,<sup>17)</sup> 진주,<sup>18)</sup> 창원<sup>19)</sup> 등 여섯 곳만 풍속을 기술했다. 기술된 내용은 경주부 풍속에 신라의 유풍이 있음을 강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상도지리지』에서와 같다. 『경상도지리지』에 기술되었던 66개 고

13) 양보경, 1987, 앞의 논문, 6-7면.

14) 『世宗實錄』 권150, 地理志 慶尙道 慶州府 “民俗質朴 有羅氏之遺風焉”

15) 『世宗實錄』 권150, 地理志 慶尙道 尙州牧 善山都護府 “俗尙華麗”

16) 『世宗實錄』 권150, 地理志 慶尙道 尚州牧 星州牧 “俗尙華麗, 善女功”

17) 『世宗實錄』 권150, 地理志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俗尙勤儉 務農桑”

18) 『世宗實錄』 권150 地理志 慶尙道 晉州牧 “俗尙富麗”

19) 『世宗實錄』 권150 地理志 慶尙道 昌原都護府 “俗尙蠻暴健詆”

을을 풍속이 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6개 고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sup>20)</sup>

1469년(예종 원년)에 편찬된 『慶尙道續撰地理志』에는 지리지 편찬 원칙인 '地理志續撰事目'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지리지에서 서술할 29개의 범주가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고을 풍속이 독립된 범주로 제시되지 않았다.<sup>21)</sup> 이 지리지는 1477년(성종8)에 완성된 『八道地理志』의 일부가 되었고, 이 『팔도지리지』에 동국 시문만을 덧붙인 것이 『동국여지승람』이라고 알려져 있다.<sup>22)</sup> 『동국여지승람』에는 고을별 연혁과 관원 다음에 풍속 항목을 두어 서술하고 있고 이는 1531년(중종26) 이를 증보하여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도 이어졌다.<sup>23)</sup> 그런데 문화적 성격이 강화된 『동국여지승람』 계통을 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풍속 항목은 있지만, 모든 고을 풍속이 전면적으로 수록되지는 않았다.<sup>24)</sup> 그래도 풍속조 기술은 크게 늘어 전체 105개 고을 풍속을 볼 수 있다.<sup>25)</sup> 불과했던 『세종실록지리지』에

20) 경주부에 남겨두었던 규장각 소장본 『경상도지리지』에만 특별히 도 전체를 개관하는 내용을 덧붙였던 것일 수도 있고, 『신찬팔도지리지』의 저본이 되었던 팔도 도지 전체에서 풍속 기술이 있었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삭제한 것일 수도 있다.

21) 『慶尙道續撰地理志』(奎 10008) 「地理志續撰事目」

22) 양보경, 1987, 앞의 논문, 7면.

23)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은 建置沿革, 鎮管, 官員, 屬縣,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烽燧, 城廓, 關防, 宮室, 樓亭, 學校, 驛院, 橋梁, 倉庫, 佛宇, 祠廟, 陵墓, 古跡, 名宦, 人物, 題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양보경, 1987, 앞의 논문, 30-31면)

24) 양보경은 『四庫全書提要』의 지리지 총서를 인용하여 중국에서 唐의 『元和郡縣志』에 이르러 '古蹟'조가 추가되고, 북송대 『太平寰宇記』(980)에서부터 지리 외에 姓氏, 人物, 風俗 등의 항목이 편입되었고, 祝穆의 『方輿勝覽』에서 건치연혁이 간략화되고 인물쇄사를 반드시 기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송대에 성립된 문화적 성격이 강화된 지리지 체례가 우리나라의 『東國輿地勝覽』 계통의 지리지에 맥이 닿는다고 하였다.(양보경, 1987, 앞의 논문, 22-23면) 피터 볼은 19세기 학자 유여송처럼 『태평환우기』나 王象之의 『輿地紀勝』과 같은 지리서가 이전의 관료행정적 지리서와 완전히 다르다고 파악한 이도 있으나, 『여지기승』이나 祝穆의 『方輿勝覽』과 같은 지리지는 지역 내의 문, 문화적 표상들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태평환우기』 등 이전의 작업들과는 완전히 구분된다고 보았다. 볼은 이와 같은 지역 지리 인식에 기반한 작업들을 '문화지리(the cultural geography)'의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Peter Bol, 2003, *op. cit.*, pp. 54-64.)

비해서는 풍속 기술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다. 경상도의 경우는 44개 고을의 풍속이 기술되어 가장 많고, 전라도 24개, 강원도 12개, 충청도 8개, 경기 6개, 황해 5개, 평안 4개, 함경 2개 고을 풍속을 기술했을 뿐이다. 풍속을 바꾸는 교화의 정치, ‘왕도정치’를 천명하였던 조선에서 건국한 지 100년이 지난 후까지도 조선 땅 전체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곳에 대해서만 풍속을 파악하고 기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국가적 지리서에서 더 많은 지역의 풍속을 기술하게 된 양적 변화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15세기 초반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군현에 대해 풍속을 기술하고 있던 경상도 지역을 통해보면 기술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풍속조와 1425년 『경상도지리지』 풍속조 기술을 비교해 내용상 변화가 있는 경우를 따져보았을 때, 풍속 기술이 있는 44개 군현 중 1425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은 군현이 21개, 달라진 군현이 23개소이다(부록 <표 1>).

그 변화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비교적 부정적인 풍속 서술이 사라진 경우이다. 밀양(④)은 “싸움을 좋아한다”는 평가가 사라졌고, “화려함과 사치를 좋아한다”는 觀風案의 평가가 대신했다.<sup>26)</sup>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상도 전체에서 보기 드물게 갖고 있었던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평가에서는 벗어났다. 비안(⑤)의 경우도 “어리석고 완고하다”는 평가를 대신해서 “백성은 순후하고 풍속은 검소하다”는 평가를 얻었다.<sup>27)</sup> 선산(⑦)의 경우에도 “화려함을 송상한다”는 사라지고 “문학을 송상하고 민풍이 순박하다”는 평가가 대신했다.<sup>28)</sup>

울산(⑯)의 경우에는 “무예를 좋아하고 장사를 좋아한다”는 관풍안의 평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河演의 記文을 인용한 “품성이 강직하고 의지가 강해 文治를 일으켜 쉽게 교화할 수 있다”는 기술이 추가되었다.<sup>29)</sup> 진주(⑯)는 ‘强敏’하다는 평

25) 이는 전체 330개 고을 중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이다.

2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6, 密陽都護府 8a

2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5, 比安縣 31a

2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9, 善山都護府 1b

2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2, 蔚山郡 2a

가가 사라졌고, 地理志를 인용한 “詩書를 숭상”한다는 평가와 하연의 「四教堂記」를 인용한 “학문을 좋아하여 업으로 삼는다”는 등의 평가가 추가되었다.<sup>30)</sup> 河峯의 「蠹石樓記」를 인용한 “농사짓는 지아비와 양잠하는 아녀자가 그 부지런한 바를 행하고, 효자와 자애하는 자손[慈孫]이 그 할 바를 다한다”는 기술도 덧붙여졌다. 안동(⑨)의 경우와 예천(⑯)의 경우 “근본에 힘쓰고 절용한다”, “근검하고 충의롭다”, “풍속이 예스럽고 백성이 순박하다”거나 “여향에 각박한 풍속이 없다”는 등 긍정적 기술이 더 늘어났다.<sup>31)</sup> 의성(⑰)도 “거주하는 백성들이 순박하다”는 평가를 얻었다.<sup>32)</sup>

군위(②)의 경우는 “검소함을 숭상한다”에서 “순후하고 질박함을 숭상한다”로 바뀌었다. 이 평가는 金克己의 시에서 유래했는데 주석에서 그 시의 원문을 인용하고 있다. “풍속이 순후하고 질박하다. 읍의 호강들도 호미와 쟁기들고 농사에 힘쓰며 부유한 집 부녀들도 비단 옷을 안 입는다”는 것이었다.<sup>33)</sup> 이 시에는 순후와 질박이 환경의 제약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문화적 취향이나 지향성 의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부지런해야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검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호강이나 부자집 부녀자에게서 관찰되듯이 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뿐이라는 것이다. “검소하다”, “아끼는 것을 좋아한다” 등 기왕의 풍속 기술에 보태지고 있는 ‘순후함’이란 이러한 종류의 타고나거나 자연스럽게 배어들어 있는 문화적 취향이나 품성이었다.

한편 경주와 양산의 경우에는 앞선 풍속조 서술 내용과 크게 달라졌다. 경주의 경우에는 『三國史』, 『隋書』, 『唐書』 등 여러 역사책들을 인용하여 “군자의 나라”라든가 “검소한 옷을 숭상한다”는 기술 외에도 가배 날까지 이어지는 길쌈 풍속이나 풍월주와 화랑제도 등 신라 아래의 옛 민속을 길게 기술하였다.<sup>34)</sup> 이는 신라의

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0, 晉州牧 2b. 주석에 인용된 하연의 「四教堂記」 구절은 “好學爲業 風俗已成”이다.

3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4, 安東大都護府 3b;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4, 醴川郡 35b

3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5, 義城縣 14a

3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5, 軍威縣 28b

3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1, 慶州府

옛 일을 단순히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오래 전 관찰된 풍속들을 선별하여 수록하는 데에는 조선시대인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 “가게를 벌여놓고 교역을 행하며 물건을 살을 때는 수레를 사용한다”라든가 “변화하고 아름다움이 남쪽의 제일이다”는 등 경주의 부유하고 변화함을 묘사한 내용도 있다. “백성의 풍속은 질박하다.”, “민속이 질박하니 신라의 유풍이 있다”,<sup>35)</sup> “토지는 비옥하고 풍속은 순박하며 백성들은 예의로 사양할 줄을 안다”는 등의 기술은 여타 경상도의 기풍에서 주목했던 바와 같다.

양산의 경우에는 “집집마다 남녀 구별없이 대나무로 도구를 만든다”고 기술하였다.<sup>36)</sup> 그 주에서 이러한 풍속 기술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소개했는데 崔灝가지은 「安梁州를 보내는 序[送安梁州序]」이다. 이 글은 옛날 이원윤이 양산에 귀양을 가 있던 시절 양산의 풍속을 잡시나마 바꾼 예를 들어 새로 부임하는 양산수령에게 선정을 당부한 글이다. 옛날 양산은 대나무 그릇을 팔아 연명할 수 밖에 없었던 가난한 고을이었다. 백성들의 풍속도 경박해 이를 떨쳐 일으키지 못하였다. 이원윤이 솔선하여 백성들에게 지형을 고려해 부지런히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양산의 거친 밭을 잘 경작할 수 있게 했지만 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 풍속으로 돌아갔다. 새 양산 수령은 양산을 적다 여기지 말고 우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르쳐 변화하게 하라고 당부한 내용이다. 고을의 풍속을 바꿈으로서 절대 빙곤도 극복하게 할 수 있다는 소신이 담겨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조선의 여러 고을의 풍속을 관찰하여 그 지역 정보에 포함시켰다. 이 때 관찰한 고을의 풍속은 고을 고유의 민속이 아닌 고을 전체가 가진 품성이었다. 사람들의 인품을 평가하듯 사람들이 모인 고을의 성품을 보고자 했고, 그 변화를 관찰해 기록했다. 『동국여지승람』은 단지 정부에서 작성·보관했던 이전의 지리서와 달리 간행·보급되었던 책이다. 이 책에 수록된 고을의 풍속은 조선 국가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첫 번째 풍

35)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되었던 풍속 기술이다. 각주 14) 참조.

3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2, 慶尙道 梁山郡.

속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경상도 지역의 상당수 고을들은 100년 전 풍속과 다른 풍속을 얻고 있었다.

### 3. '풍속' 관찰의 관점: 政令의 통치에서 禮敎의 정치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로도 지방 풍속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 절에서는 풍속 조의 서술이 단순한 객관적 관찰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와 문화에 대한 시대의 인식, 그리고 정치와 문화의 장이자 실천의 주체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의 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1587년 鄭述가 수령으로 있을 때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咸州誌』에는 함안의 풍속을 여지승람에 비해 매우 자세하게 중보했다.<sup>37)</sup> 편찬자가 정구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고을 읍지의 편찬에는 고을 공론이 반영되었다.<sup>38)</sup> '풍속이 검소하고 소박함을 송상한다[俗尙儉率]'이었던 함안 풍속은 "사대부는 예의를 존모하고 상제

37) 1587년 정구가 함안 수령으로 있을 때 작성한 『咸州誌』는 1581년 윤두수가 편찬한 황해도 『延安邑誌』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사찬읍지로 알려져 있다. 정구는 함안의 지방관이었고, 지방관 주도로 지역민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읍지이다. 중앙의 명에 의해 이전의 읍지를 그대로 베껴쓰는 19세기 후반의 읍지들을 제외하고, 지방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함주지』나 남원 『龍城誌』 등의 경우를 '사찬'으로 분류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중앙 집권 대 지방분권의 구도와 연동하여 이같이 분류하게 되면 사찬읍지에도 지방정부의 후원이나 간여가 있었다는 사실, 사찬의 주체가 지방 정부의 관료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관찬이나 사찬 구분없이 조선시대 전국지리지나 군현 읍지 내에서 드러나는 시대적 변화들을 관찰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관찬과 사찬을 구분하지 않고 조선시대 전국지리지나 군현 읍지에 나타나는 변화상과 그 이면의 지역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지방의 治에 대한 인식의 변화-政令의 통치에서 禮敎의 정치로'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려 한다.

38) 17세기 초반 예안지역 사족 金光繼의 『梅園日記』에는 고을의 풍화에 관심을 둔 지역 사족의 일원으로서 김광계의 활동이 상세하게 보인다. 여기에는 宣城 읍지를 편찬할 때 김광계가 공의를 모으는 지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김호, 2017 「17세기 초 예안 사족 김광계의 접빈객과 일상정치」 『일기를 통해 본 양반들의 일상세계』, 새물결, 78-80면.)

례를 삼가 행하고 백성은 농사와 양잠에 힘쓰며 겸하여 어염을 내다 파는” 풍속을 가진 고을이 되었다.<sup>39)</sup> 이 『함주지』의 풍속은 이후 함안 읍지들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런데 『함주지』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면리별로 지역의 특성과 함께 풍속을 기술하였다(〈표 2〉).

〈표 2〉 1587년 『함주지』 수록 마을 풍속

면리명	지역 특성	풍속
上里 <sup>40)</sup>	이 마을은 토지가 肥饒하고 수한의 재양이 없다. 사족과 천류가 잡거한다.	백성은 가난하고 부역이 번다하며 예의로 가르침이 없다.
下里 <sup>41)</sup>	이 마을은 물산이 많고 토지가 비옥하니 일읍에서도 으뜸이다. 사대부가 많이 산다.	풍속이 순박하고 백성은 검소하나 순후한 자와 결집이 많은 자가 서로 섞여있다.
竝谷里 <sup>42)</sup>	이 고을은 비록 산곡간 혐한 골짜기이나 자고로 문무 출신자가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여말의 원수 이방설의 유지가 내동에 있다.	백성이 대개 가난하나 풍속은 순박하고 문식이 없다.
比吏谷里 <sup>43)</sup>	이 고을은 삼면이 큰 산으로 막히고 한 물줄기가 가운데로 흐르니 자못 계산의 흥취가 있다. 자고로 사족이 살지 않았다.	백성은 절박하나 어리석고 풍속은 순박하나 조야하다.
大谷里 <sup>44)</sup>	이 고을은 땅이 비옥하고 백성이 부요하고 넉넉하다. 사족이 살지 않는다.	풍속이 어리석고 완고하며 오직 농사에만 힘쓴다.
平廣里 <sup>45)</sup>	이 고을은 땅이 좁고 척박하다. 거주하는 백성이 적다. 자고로 衣冠人이 이곳에서 많이 났다.	풍속이 검소하고 절박하며 제사에 근면하다.
山足里 <sup>46)</sup>	이 고을은 땅이 넓으나 척박하다. 簪纓이 끊이지 않았다.	상례와 제례에 충실하고 사치를 중상한다.
竹山里 <sup>47)</sup>	이 마을은 지세가 낮고 수재가 많다. 사족 몇 집이 모로곡에 산다.	오직 농상에 힘쓰고 명분을 알지 못한다.
安道里 <sup>48)</sup>	이 고을은 땅이 비옥하기를 일읍에서 최고이다. 사족 수삼가가 소대동과 오장동에 있고 나머지는 대개 공천으로 즐비성촌에 있다.	예의를 알지 못한다. 백성들은 본업에 근실하다
南山里 <sup>49)</sup>	이 마을의 지세는 북쪽이 높고 점차 낮아진다. 수재가 거의 태반이다. 사족과 천류가 잡거한다.	백성이 가난하고 풍속이 사나우며 문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牛谷里 <sup>50)</sup>	이 마을은 삼분이 수환이다. 옛날부터 사대부가 도읍곡에 거주한다.	농사에 근실하고 선비들이 학문을 모른다.

39) 『咸州誌』(奎 12249) 7면. 「俗風」 “俗尙儉率載勝覽 土慕禮義謹於喪祭 民務農桑兼販魚塙”

白沙里 <sup>51)</sup>	이 마을은 지세가 가장 아래라 전부 수재를 입는다. 자고로 사족이 거주하지 않는다.	백성이 완고하고 어리석으며 투송이 끊이지 않는다.
馬輪里 <sup>52)</sup>	이 고을은 수환이 백사리보다 심하다. 예부터 사족이 살지 않는다.	어리석고 사나우며 송사를 좋아하는 것이 백사리와 백중을 겨룬다
大山里 <sup>53)</sup>	이 고을은 비록 수환이 있지만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이 많이 거주한다. 양반이 거주하지만 右族[명문가]는 없다.	무지하고 거칠고 어리석으나 농사에 힘쓰고 겸소하다
代山里 <sup>54)</sup>	이 고을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본디 부성한 고을이라 칭했다. 땅이 가장 낫아 백성들이 해마다 수재를 캐고 달마다 戍役으로 고생하여 점차 유리하니 고을의 밤 짓는 연기가 끊겨 쓸쓸하다.	인심이 어리석고 싸우기를 좋아하며 이익을 중상한다.
安仁里 <sup>55)</sup>	이 마을은 수재와 한재가 번갈아 백성이 매우 가난하고 척박하다. 자고로 진신이 많이 배출되었다.	남겨진 유풍이 들을만한 것이 없고 농사에만 힘쓰고 의리를 가볍게 여긴다.
山翼里 <sup>56)</sup>	이 마을은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다. 잡영이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모곡에 산다.	옛날에는 문예를 숭상하고 지금은 오직 근실하고 순박하다.

- 40) 『咸州誌』(奎 12249) 7면. 「各里」 “上里 (중략) 此里 土地肥饒 無水旱之災 士族賤類雜居 焉 風俗則 民貧役煩 禮義無敎”
- 41) 『咸州誌』(奎 12249) 7-8면. 「各里」 “下里 (중략) 此里 物衆土沃冠於一邑 士大夫多居焉 風俗則 俗薄民儉 淳疵相雜”
- 42) 『咸州誌』(奎 12249) 8면. 「各里」 “竝谷里 (중략) 此里 雖山谷險峽 而自古文武出身者 世不絕人 麗季元帥李芳實遺址在內洞云 風俗則 民多貧窶 俗朴無文”
- 43) 『咸州誌』(奎 12249) 8면. 「各里」 “比吏谷里 (중략) 此里三面阻嶺 一水中注 頗有溪山之趣 自古無土族之居 風俗則 民質而愚 俗朴而野”
- 44) 『咸州誌』(奎 12249) 9면. 「各里」 “大谷里 (중략) 此里 土地肥沃居民饒足 無土族之居 風俗則 俗蠶而頑 惟務稼穡”
- 45) 『咸州誌』(奎 12249) 9면. 「各里」 “平廣里 (중략) 此里 地峽土瘠居民鮮少 自古衣冠多出於此 風俗則 俗尚儉質 謹於祭祀”
- 46) 『咸州誌』(奎 12249) 9면. 「各里」 “山足里 (중략) 此里 地廣土瘠 簪纓不絕 風俗則 謹喪祭 尚侈靡”
- 47) 『咸州誌』(奎 12249) 10면. 「各里」 “竹山里 (중략) 此里 地勢卑下多水災 士族數家居于毛老谷里 風俗則 唯務農桑 不知名分”
- 48) 『咸州誌』(奎 12249) 10면. 「各里」 “安道里 (중략) 此里 土地肥饒爲一邑最 士族數三家居于小代洞吾莊洞兩坊 而餘皆公賤櫛比成村 風俗則 不知禮義 民勤本業”

『함주지』에서 관찰한 고을의 특성을 보면 고을의 물질적 여건, 형세에서 비롯한 재이 유무, 백성들의 경제적 형편과 함께 사족이나 緇紳, 衣冠으로 지칭되는 현달한 가문들의 현황을 기록했다. 이어 고을별로 풍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평가의 기준’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山翼里나 검소하고 예의, 의리를 알고 학문을 알며 다투지 않는 풍속을 중시하고 있지만, 가문이나 현재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이 좋은 풍속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현재 사족이 많이 살고 있거나 대대로 진신과 잠영 즉 관료로 현달한 사람들을 배출한 곳이라도 풍속 평가는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사족과 천류가 잡거하는 上里에는 “예의로 가르침이 없고”, 사대부가 많이 있는 下里는 대체로 순박하나 “순후한 자와 결점이 많은 자가 섞여 있었다”. 사족 몇 집이 있는 竹山里도 “명분을 알지 못한다”는 평가를 들었고, 옛날부터 사족이 살았던 牛谷里에는 “선비가 학문을 모른다”고 했다. 자고로 진신이 배출되었던 安仁里도 “남겨진 유풍이 들을만한 것이 없고 의리를 가볍게 여긴다”고 했다. 사족이 없는 白沙里와 馬輪里는 “鬪訟이 끊이지 않는다”는 가장 비판적인 평가를 얻었지만, 대대로 사족이 없는 비리곡리는 우매하고 조

- 
- 49) 『咸州誌』(奎 12249) 10면, 「各里」 “南山里 (중략) 此里 地勢北下水災殆半 士族賤流雜居 焉 風俗則 民貧俗悍 不事文武”
- 50) 『咸州誌』(奎 12249) 11면, 「各里」 “牛谷里 (중략) 此里 三分水患居一 自古士大夫居于刀音谷 風俗則 勤生嗇施 士不知學”
- 51) 『咸州誌』(奎 12249) 11면, 「各里」 “白沙里 (중략) 此里 地勢最下 全被水災 自古無士族之居 風俗則 民頑俗蠶 鬭訟不絕”
- 52) 『咸州誌』(奎 12249) 11면, 「各里」 “馬輪里 (중략) 此里 水患甚於白沙 自古無士族之居 風俗則 蠶悍鬭訟 伯仲白沙”
- 53) 『咸州誌』(奎 12249) 11면, 「各里」 “大山里 (중략) 此里 雖有水患地廣土沃 民居甚盛 間有兩班之名無右族焉 風俗則 無知麤鄙 務農儉嗇”
- 54) 『咸州誌』(奎 12249) 12면, 「各里」 “代山里 (중략) 此里 土廣人衆素稱富盛 地最卑下民皆船卒 歲困水災月苦役 漸益流離烟火蕭條焉 風俗則 人心蠹愚 好鬭尚利”
- 55) 『咸州誌』(奎 12249) 12면, 「各里」 “安仁里 (중략) 此里 水旱並災 民心貧瘠 自古縉紳多出焉 風俗則 遺風無聞 勡穡輕義”
- 56) 『咸州誌』(奎 12249) 12면, 「各里」 “山翼里 (중략) 此里 土瘠民貧 簪纓世不乏 人皆居于茅谷 風俗則 古尚文藝 今猶謹朴”

야하기는 해도 “절박하고 순박하다”는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 사족의 유무가 고을의 풍속과 그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경제적 부유함과 가난함이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 오직 일정한 문화적 기준 “검소하고 예의, 의리를 알고 학문을 알며 다투지 않는 문화”의 성취 여부가 풍속조 서술의 기준이 되고 있었다.

1625년 편찬된 진주 고을의 읍지 『晉陽志』에서도 『합주지』와 마찬가지로 「각리」 항목에서 면리별 풍속을 기술했다. 丁樹介里나 上寺里와 같이 사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시서를 중히여기고 화목을 숭상한다[惇詩書尙和睦]’거나 猪洞里와 같이 ‘인심이 순후하다[人心醇厚]’, 槽洞里와 같이 ‘풍속이 순박하다[風俗淳朴]’ 등으로 기술되었다. 法輪里나 桁洞里 등 사족이 전혀 살지 않는 곳, 공사천이나 잡류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싸우고 소송하기를 좋아한다[好鬭訟]’거나 ‘강하고 사나움을 숭상한다[尙强悍]’ 등의 평가가 보인다. 그러나 토지가 기름지고 사족이 세거하는 柏谷里의 풍속은 ‘강하고 사나움을 숭상하며 싸우기를 좋아한다[尙强悍好爭鬭]’라 하여 공사천, 잡류의 거주지와 다를 바 없었다. 內平里와 같이 사족이 없는 곳에 ‘풍속이 검소함을 숭상한다[風俗尙儉率]’, 대평리와 같이 거주하는 백성이 궁핍한 곳에도 ‘풍속이 절박하고 순후하다[風俗朴厚]’ 등의 평가를 볼 수 있다.<sup>57)</sup>

선산 출신의 학자·관료인 崔眞이 광해군대 관직에서 물러나 선산 지역에 머물며 지역 공의를 이끄는 역할을 했던 시기인 1618년 완성한 선산 지역의 읍지 『一善志』에도 풍속 기술이 더욱 상세해졌다.<sup>58)</sup> 문학을 숭상하고 민풍이 순박하다는 『여지승람』의 기록에 여러 기록들이 추가되었다. 우선 “절의의 유풍과 도의가 있고 詩·書의 가르침이 흥하였다”는 평가는 퇴계 문집에 수록된 바, 앞에는 吉再의 풍절이 있고 뒤에는 鄭鵬 및 朴英의 도의가 있다는 글과 鄭麟趾 기문의 “학도들이 수업을 받고 시서가 크게 흥하였다”는 기록에서 유래한 것이다.<sup>59)</sup> “선비가 많아 영남의 절반에 이른다”는 평가는 점필재 김종직의 시구절 “일선에는 예부터 선비

57) 『晉陽志』(古 4790-17) 「各里」

58) 『忍齋先生文集』, 「年譜」, “四十六年戊午\_先生五十六歲（中略）一善誌成”

59) 『一善誌』(奎 15484) 46면 風俗第二, “風節道義詩書教興\_退溪文集 前有吉先生之風節 後有鄭青松朴松堂之道義 鄭麟趾記 學徒受業 詩書之大興.”

가 많아 영남의 절반에 이른다 일컬었네[一善古多士 號居嶺南半]”에서 유래했다.<sup>60)</sup> 승상하는 학문은 ‘文學’에서 길재와 정봉 및 박영의 실천으로 상징되는 ‘道學’과 ‘詩書의 가르침’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영남을 대표하는 선비들의 존재 역시 단지 특권층으로서의 양반 사족이 아니라 도의의 학문을 닦고 이를 실천하려는 이들로서 설명되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중요치 않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일선지』의 작자가 이렇게 일선 즉 선산 지역의 풍속을 정의하고 고을의 과거를 특정한 방식으로 역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산에서 살아갈 미래의 이들에게 이 지역에 배어들어 있는 과거의 ‘풍속’은 그들이 계승하고 이어나가야 할 전통이 될 것이었다.

이렇게 새로운 기준에 의해 지역의 풍속조 서술을 바꾸거나 보태는 경우에도, 과거 풍속조의 어떤 부분이 문제시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다. 그런데 1768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풍기 읍지인 『基川誌』의 풍속조에는 매우 흥미로운 글이 실려 있다. 기천은 풍기의 옛 이름이다. 풍기 지역은 『경상도지리지』에서 풍속이 ‘強狼’, 즉 ‘억세고 사납다’는 평가를 얻은 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그 평가를 바꾸지 못했다. 『기천지』가 편찬되기 바로 직전에 편찬된 국가지리서인 『輿地圖書』에서도 풍기의 풍속이 풍속히 유지되었다. 그런데 『기천지』의 저자들은 옛 풍기군수였던 주세봉의 『竹溪誌』를 인용하여 기왕의 풍속 평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sup>61)</sup>

60) 『一善誌』(奎 1548) 46면 風俗第二. “古稱多士居嶺南半\_佔畢齋詩 一善古多士 號居嶺南半”

61) 주세봉의 풍기 풍속에 대한 평이 실린 『竹溪志』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孝悌로써 근본을 삼는다. 士가 되어서는 廉恥와 直方과 自守로써 격려하지 않음이 없다. 그 풍속을 보면 순후해서 오만하며 불순하며 이익을 탐하여 의를 잊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오직 괴이하게도 『여지지』에 풍속이 강랑함을 승상한다고 하였다. 어느 때에 기록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풍양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수치를 입게 하였으니 무함이 아닌가. 이제 오늘날 풍속이 승상하는 바를 기록하여 훗날 풍속을 채록하는 이들이 취하고 버릴 바를 알게 하려 한다.” (『竹溪志』, 雜錄後, 「豐基俗尙記」. “人無有貴賤 皆以孝悌爲本 至於爲士者 莫不勵廉恥直方自守 視其俗醇如也 未聞有狼驚不遜饕利而忘義者 獨怪輿地志稱俗尙強狠 不知何代所記也 使風壤至今蒙恥 不亦諷乎. 並錄今日俗尙 使後之采風者 知所取捨也.”)

주세봉의 『竹溪誌』에 이르기를 “사람에 귀천이 없고 모두 효제로써 근본을 삼는다. 염치와 直方과 自守로 격려하지 않음이 없으며 사납고 오만하며 이익을 탐하고 의리를 잊는 자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 오직 괴이하게도 『여지지』에 풍속이 ‘強狼’하다고 하여 豊陽으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수치를 입게 하였으니 또한 무함이 아닌가.”<sup>62)</sup>

주세봉은 풍기의 사람들이 효제로써 근본을 삼고, 염치와 직방, 자수로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언한다. “풍속이 강량하다”는 의미를 주세봉은 “사납고 오만하며 이익을 탐하고 의리를 잊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자신이 보기에 풍기의 풍속은 이와 너무 거리가 면데, 여지지에서 이를 왜곡하였다고 보았다. 또 주세봉은 이를 지역 전체에 대한 무함으로 받아들였고, 풍속조의 평가가 지역민 전체를 수치스럽게 한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주세봉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첫째, 풍기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자였던 군수 주세봉이 풍기 지역의 풍속이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바로잡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주세봉이 바로잡고자 한 내용 그 자체, “귀천에 관계없이 효제를 근본으로 삼고, 廉恥와 直方과 自守로 서로 격려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측면을 보면 풍속조의 내용이 단지 지역민의 명예의식에만 관계되지 않았고, 또 ‘지배’의 관점에서 다스리기 좋으냐 나쁘느냐만을 중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리지를 관찬/사찬으로 나누어 전자는 국가, 후자는 사족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주세봉과 같은 지방관[국가대리인]이 풍속조에 ‘분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주세봉이 ‘백운동서원’을 세워 지방의 풍속을 흥기시키고자 했고, 그로써 후대에도 이름을 남긴 신유학적 지방관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야 그의 감정이입이 이해된다.<sup>63)</sup>

62) 『基川誌』(古4799-5), 「風俗」

63) 안향을 사표로 삼아 공부하는 장소로 백운동서원을 세우며 주세봉이 지은 『竹溪志』 서문에는 “하늘이 백성을 나오매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는 교육이 있기 때문이며, 교육은 난리를 막고 기근을 구제하는 것보다 급하다”고 하고, 또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인심과 정체에 있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며 황정과 서로 표리를 이룬다”고 하였다. 관료 행정에 앞서 서로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관

그는 단지 국가를 대신하여 토지와 인구를 늘리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민생에 책임이 있는 관리였다. 우리는 ‘민생’하면 삶의 경제적 측면을 떠올리지만 조선시대 유교주의적 민생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돋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윤리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sup>64)</sup> 明德論에 입각해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갖고 있다고 여긴 윤리적 능력을 배양하고 일깨우는 것이 주세붕과 같은 지방관의 역할이었다.

그렇다고 주세붕이 ‘正風俗’을 내건 중앙정부의 입장에 호응하여 정치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풍기의 풍속을 전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주세붕은 풍기의 풍속이 수령의 善政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안향 아래의 가르침의 효과로 원래부터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풍기 사람들은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孝悌를 중시하며, 풍기에는 義를 잊고 이익[利]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明德’을 가진 인간, 기질의 차이에 의해 편차는 있지만 근원적 도덕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 따라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교육은 어떤 정치 행위보다 우선되어야 했다. 다스림[治]이란 단순한 관료 행정이 아니라 포괄적 교육으로서의 예교였다. 이같은 주자학적 경제론, 예교주의적 경제론 위에서 주세붕이 풍기의 풍속을 긍정적으로 재발견해낸 것이었다. 침식을 잊어가며 지역의 오래 전 옛 선생을 기리고 그 가르침을 잇는 학생들을 기르는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데 힘을 기울였던 자기 정치의 방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사납고 오만하며 이익을 탐하고 의리를 잊는’ 기풍 대신에 ‘부모-자식간, 형제간에 서로를 위하고 돌보는’ 기풍을 풍기 사민들의 풍속으로 삼고, 이를 더욱 격려해 사실로 만드는 정치를 추구해나가고자 한 것이다. 실록에서는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있을 때 ‘교회’에 중점을 둔 정치를 펴나간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sup>65)</sup> 주세붕이 형제간의 다툼과

---

료였던 주세붕의 신유학적 정치관을 엿볼 수 있다. (『竹溪志』, 「竹溪志序」, “天生蒸民 所以爲人者 有教也 人而無教 父不父 子不子 夫不夫 婦不婦 長不長 幼不幼 三綱倫而九法數 人之類滅久矣 夫教必自尊賢始 故於是 立廟而尚德 立院而敦學 誠以教急於已亂救飢也。其言曰 自世俗言之 似無緊要 自今觀之 於人心政体 所係不輕 如今日荒政 便與此事相表裡。”)

64)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더라도 ‘항심’을 기르기 위한 토대로서의 ‘항산’이었다.

65) “전에 형으로서 아우를 송사하여 그 재물을 빼앗으려는 백성이 있었는데, 주세붕이 그

송사를 그치게 한 방법은 처벌이 아니라 본래 가진 효제의 마음을 일깨우는 교화의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가 5년간 지속된 결과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 4. 풍속을 바꾸는 경쟁: 조선후기 경상도 지역 풍속조의 변화

주세봉은 16세기 중반을 살았던 인물이다. 주세봉과 같은 생각은 조선에서 그 이전부터 시작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볼 수 있듯이 경상도 절반의 풍속을 이전과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 지역 풍속이 단지 지역민의 명예가 아니라 정치의 득실과 관계있다는 생각은 조선후기에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경상도 지역은 아니지만 정구와 마찬가지로 고을 역사와 문화의 기록으로 읍지를 편찬하고자 했던 윤두수가 지은 『平壤志』 풍속조의 서문에는 “서로 부는 것을 風이라 하고 서로 물드는 것은 俗이라 한다. (중략) 풍속이 사람들에게 옮아가는 것을 정치가가 관찰하니 어찌 염려하여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어찌 齊나라가 한번 변하여 魯나라가 되고 魯가 한번 변하여 道에 이르

---

백성을 시켜 제 아우를 업고 종일 뜰을 돌게 하되, 계을러지면 독촉하고 앓으면 꾸짖었다. 몹시 지치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을 불러 문기를 ‘너는 이 아우가 어려서 업어 기를 때에도 다투어 빼앗을 생각을 가졌었느냐?’ 하니, 그 백성이 크게 깨달아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또 생원 李克溫이 제 아우를 송사하여 다투 일이 있었는데, 주세봉이 훤 종이 한 폭에 왼쪽에는 理자를 쓰고 오른쪽에는 欲자를 써서 이극온에게 주고 찬찬히 타이르기를 ‘네가 곧거든 이 자 아래에 이름을 적고 너에게 욕심이 있었거든 욕 자 아래에 적으라.’ 하니, 이극온이 붓을 잡고 낮을 붉히며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주세봉이 소리를 둑우어 ‘너는 생원인데 어찌 이와 욕을 분별할 줄 모르겠느냐. 빨리 적으라.’ 하니, 이극온이 곧 욕 자 아래에 적고서 간다는 말도 없이 달아났다. 주세봉이 5년 동안 벼슬을 살았는데, 정사를 행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혈뜯고 비웃었으나, 誠信이 점점 젖어들어서 오래되자 교화되니, 전일 혈뜯고 비웃던 자들이 다 감복하였다. 주세봉은 儒家의 찌끼만을 겨우 알아서 오활하게 처사하였는데도 사람들이 감화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풍속이 경박한 죄는 백성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중종실록』권95, 36년 5월 22일 정미)

렸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여 풍속의 변화를 잘 살펴 좋은 방향[道]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치자[爲政者]의 할 일로 규정하였다.<sup>66)</sup>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져 크게 영향을 주면서도, 쉬 속일 수도 없는 것이 민간의 풍속이었다. 훗날 정조는 “정사는 조정에서 보고 풍속은 민간에서 보아야 한다. 정사가 미치는 바는 얕지만 풍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깊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잘 살피는 자는 반드시 민간을 먼저 본 다음에 조정과 저자를 보는 것이다.”라며 정치의 득실은 민간의 풍속에서 제대로 볼 수 있고, 민간[지방]의 풍속을 크게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sup>67)</sup> 이는 정조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 조선시대 정치에 임하는 모든 이들이 동의한 바였다.

신증 단계에서 풍속을 바꾸지 못한 나머지 지역들 역시 자기 지역에 새겨진 ‘불명예’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다. 아래 <표 3>은 신증의 시기까지 변화하지 않았던 지역들의 풍속조에 언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조선후기 경상도 지역 풍속조의 변화

군현명	1425년 풍속조	변화시기	변화된 풍속조 기술 내용
개령	俗尙侈靡力農	1765	풍속이 겸소함을 송상하고 농사에 힘쓰고 면농사에 부지런하다. <sup>68)</sup>
거창	俗尙強狠	1895	풍속이 절의를 송상한다. <sup>69)</sup>
고령	俗尙強武力農	1765	(추가) 풍속이 순박함을 송상한다. <sup>70)</sup>
기장	俗尙武藝	1765	풍속이 겸소하고 농사와 양잠을 중히 여긴다. 한 해의 끝 무렵 일을 하지 않을 때에 모여서 서로 경계하고 상장제례는 술잔과 부의로 서로 조문한다. 4월 8일에 집집마다 등을 달고 5월 5일에는 추천희를 한다. 노인이 많은데 땅이 비좁하여 한질을 견디기 어려우나 문식이 없고 이익을 좋아하지 않고 제 힘으로 먹는다. 매년 봄과 가을에 노소가 모두 모여 일동에는 동풍으로 바로 잡고 일향은 향약으로 바로 잡는다. <sup>71)</sup>

66) 『平壤志』(古 4790-2) 卷1, 風俗

67) 『弘齋全書』卷29, 緯音4,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緯音\_丁巳」

김산	俗尙華麗 力農 善女功	1759	문학을 숭상하고 풍속이 순후한 데에 가깝다. <sup>72)</sup>
김해	俗尙強簡 力農好學	1789	매년 동짓날 일향의 부로들이 모두 모여 수로 왕과 허후를 능소에서 제사지내고 會老堂에서 대궁밥을 먹는다. 당상에 정풍속 절목을 내걸고 강을 따라 규찰하고 포상하였는 것을 해마다 상례로 여겼다. 지금은 그 당도 훼철하고 절목 역시 폐하였다. <sup>73)</sup>
동래	俗尙恭儉	1740	박소하고 나약하다. 장사로 생을 꾸린다. 각면에 모두 동안이 있어 상하를 구별한다. 동안에 들어간 이들이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한 곳에 모여 강회하고 서로 격려한다. <sup>74)</sup>
문경	俗尙儉率	1765	소박함을 숭상하고 농상에 힘쓴다. <sup>75)</sup>
사천	俗尙武藝		※ 1832년까지 변화없음.
삼가	俗尙强悍	1908	풍속이 강하고 사납다_관풍안/남명 조선생이 학문을 창도한 후 문교를 숭상하고 예양을 중히여겨 후배들이 빈번하다. <sup>76)</sup>
성주	俗尙華麗 崇文好武 善女功	1832	지리지를 보면 풍속이 화려함을 숭상하고 여공을 잘한다고 하였다. 중고 이후로 유현이 배출되어 옛 풍속을 크게 변화시켰다. 사는 예양을 숭상하고 백성들은 농상에 힘쓴다. <sup>77)</sup>
순흥	俗尙勤儉	1765	풍속이 근검함을 숭상한다_관풍안/시서를 중히여기고 염치를 격려한다_죽계지 <sup>78)</sup>
신녕	俗尙儉率	1765	토지는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다. 풍속은 순후하고 절박하다. <sup>79)</sup>
안음	俗尙强悍 好鬪爭	1832	강하고 사나우며 싸우기를 좋아한다_여지승람/[신증] 절의와 검소함을 숭상한다_문헌공 정여창이 수령으로 와 인도한 후에 유현이 배출되고 옛 풍속이 변화하였다. <sup>80)</sup>
언양	俗尙強儉力農	1832	토속이 검소하다_복색은 검소함을 숭상하고 음식은 보잘 것 없다. <sup>81)</sup>
영덕	俗尙武藝	1765	순후함과 근면함을 숭상하고 백성들은 밭갈이와 길쌈에 종사한다. <sup>82)</sup>
영산	俗尙平易	1765	백성의 삶은 주진촌과 같다_영취산 높고 높아 점점이 티끌 같은데 한 귀퉁이 백성 삶은 주진촌과 같네/뽕나무 심고 대나무 자르며 집집마

			다 거문고와 노랫 소리_이지강의 시/집집마다 거문고와 노래소리 꾀하지 않고 조정의 문에 대한 존중을 믿을 뿐이네 <sup>83)</sup>
영일	俗尙儉率	1765	집집마다 올타리는 뽕나무와 삼대_김종직의 實賓堂記/군자의 고을: 송시열의 글에 군자의 고을로 집집마다 충신과 효자가 있다고 하였다. <sup>84)</sup>
영해	俗尙武藝 好歌舞/[신증]家畜絲桐 人工操繆	1765	사는 본바탕을 숭상하고 민은 농사에 종사한다. <sup>85)</sup>
예천	俗尙平易/[신증]俗尙平易[관풍안]/閭巷無薄俗[이지강시]	1832	순후하고 질박한 내 고을 고금에 걸치네_관찰사 權孟孫 詩/ 본디 문명의 고을이라 칭해졌다네: 우윤 金應相 記 <sup>86)</sup>
울산	俗尙武藝 好商賈/[신증]俗尙武藝 好商賈_관풍안/稟性剛毅 可以興文而易化_하연기	1832	풍속이 무예를 숭상한다_관풍안/품성이 강의하니 가히 문을 일으켜 교화할 수 있겠네_河演記/귀신을 매장하는 놀음[埋鬼遊]/말머리 놀이[馬頭戲] <sup>87)</sup>
의령	俗尙强悍		
인동	俗尙節儉 務蠶桑	1765	옛날에는 순후하다 칭해졌다. 삼한 이후로 인륜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없었다. 현인을 높이고 덕을 숭상하며 학문을 드높이고 예를 좋아하였다. 집마다 墳籍을 소장하고 사람들은 농상에 힘을 기울인다. 선현의 유풍이 있다. 문강공 장현광의 향사당기문에 이르기를 “읍의 명칭을 ‘인’으로써 하니 본디 아름다운 풍속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sup>88)</sup>
장기	俗尙强悍	1765	예양을 숭상하고 검소함을 중시한다. <sup>89)</sup>
지례	俗尙儉率	1765	박소함을 숭상하고 풍속은 효열을 보존한다. <sup>90)</sup>
진보	俗尙儉率	1765	땅이 척박하고 부세가 무거워 백성이 가난하나 풍속은 검소하다. <sup>91)</sup>
청녕	俗尙氣概 好學問	1765	풍속은 순박함을 숭상하고 질이 많고 문이 적다. <sup>92)</sup>
창원	俗尙齷暴 爭訟力農/[신증]俗尙齷暴健訟	1832	풍속은 검소함을 숭상하고 공납과 부세에 성실하다. <sup>93)</sup>
청하	俗尙武藝	1765	문현을 숭상하고 무예를 강마하며 농사와 길쌈에 힘쓰고 질박하고 예스러움을 좋아한다. <sup>94)</sup>
풍기/기천	俗尙強狼	1768	*(※3절 본문 참조)
하동	俗尙儉率	1899	검소함을 숭상한다. 백성의 습속이 순후하며 부화스런 일이 없고 시서를 알고 좋아한다. 무예를 숭상하고 농상에 힘쓴다. <sup>95)</sup>

하양	俗尙儉率	1765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나 근검하게 농사에 힘쓴다. <sup>96)</sup>
함안	俗尙儉率	1587	풍속이 검소함을 송상한다_여지승람/사들은 예의를 존모하고 상례와 제례를 성실히 한다. 백성은 농사와 양잠에 힘쓰고 겸하여 어염을 판매한다. <sup>97)</sup>
함창	俗尙強嗇	1765	풍속이 문학을 송상한다. <sup>98)</sup>
현풍	俗尙儉嗇	1765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나 검소함을 송상한다. 김시습의 시에 현풍 땅에 덕화가 용성하다고 하였다. <sup>99)</sup>
홍해	俗尙武藝	1832	문교를 송상하고 무예를 강마하고 농사와 양잠에 힘쓴다. <sup>100)</sup>

- 68) 『輿地圖書』, 「開寧」 “俗尙儉嗇力稼穡勤綿農”
- 69) 『嶺南邑誌』(奎12174) 34책, [居昌], 風俗, 129면, “俗尙節義”
- 70) 『輿地圖書』, 「高靈」 “風尙淳朴\_金宗直詩”
- 71) 『輿地圖書』, 「機張」 “俗儉素尙農桑 歲暮休役之時團會相戒 哀葬祭禮奠贈相弔 四月八日家家縣燈 五月五日爲鞦韆戲 多老人地卑濕 不耐寒疾而無文不好利而食其力 每年春秋老少咸集 一洞正洞風 一鄉正鄉約”
- 72) 『金山郡邑誌』(想自古 915.15-G336) 7면 「風俗」, “俗尙文學 風近純厚”
- 73) 『金海府邑誌』(奎17442) 7면 「風俗」 “每年冬至 一鄉父老皆會 以是日 祭首露王許后于陵所飲餽于會老堂 堂上揭正風俗節目 遵講糾褒 勢以爲常 今毀其堂 節目亦廢\_事在濯纓金駒孫會老堂記見下”
- 74) 『東萊府誌』(奎11904) 17면 「風俗」, “樸素懦弱 興販資生 各面皆有洞案 區別上下 案中入參者 每歲季春之三日 季秋之九日 一處講會相爲勉”
- 75) 『輿地圖書』, 「聞慶」 “尙朴素 勤農桑”
- 76) 『三嘉邑誌』(奎21846) 17면 「風俗」 “俗尙强悍\_觀風案 ○自南冥甫先生倡學之後崇文教重禮讓後輩多彬彬焉”
- 77) 『慶尙道邑誌』(奎666) 4책, 「星州牧邑誌」 風俗, “按地理地俗尙華麗善女工 中古以後儒賢輩出 舊俗一變 士尙禮讓 民務農桑”
- 78) 『輿地圖書』, 「順興」 “俗尙勤儉\_觀風案/敦詩書 励廉恥\_竹溪誌”
- 79) 『輿地圖書』, 「新寧」 “土瘠民貧 俗尙淳朴”
- 80) 『慶尙道邑誌』(奎666) 16책, 「安義縣邑誌」 風俗, “强悍爭鬪\_勝覽 [新增] 崇節尙儉\_文獻公鄭汝昌菴縣導率之後 儒賢輩出 舊俗丕變”
- 81) 『慶尙道邑誌』(奎666) 20책, 「彥陽縣邑誌」 風俗, “土俗儉嗇; 服色尙素 食飲菲薄 馬頭戰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개는 1765년 『여지도서』 단계에서, 나머지는 1832년 『경상도읍지』 단계에서 사천과 의령을 제외한 경상도의 모든 고을이 “억세고 사납다”거나 “싸움을 좋아한다”는 풍속을 바꾸었다. 안의 지역은 1425년에 ‘풍속이 강하고 사나우며 싸움을 좋아한다’고 평가받았는데, 여지승람 단계에서 “싸움을 좋아한다”를 빼버렸고, 1832년 『경상도읍지』에서는 “문현공 정여창이 수령으로 와 인도한 후에 유현이 배출되고 옛 풍속이 변화하였다”는 주석을 달아서 “절의와 검소를 승상한다”는 풍속을 새로 증보하였다. 1899년 읍지에서는 새로 증

---

(하략) ”

- 82) 『輿地圖書』, 「盈德」風俗. “俗尙淳勤 民業耕織”
- 83) 『輿地圖書』, 「靈山」風俗. “民物朱陳\_靈鷲山高絕點塵 一區民物卽朱陳. 種桑栽竹 十室絃誦\_李之剛詩. 不圖十室聞絃誦 須信朝家正右文”
- 84) 『輿地圖書』, 「迎日」 “籬落桑麻\_金宗直 寅賓堂記 君子之鄉\_宋時烈書 君子之鄉 家家忠孝.”
- 85) 『輿地圖書』, 「寧海」風俗. “土尙質 民業農”
- 86) 『慶尙道邑誌』(奎666) 14책, 「禮泉郡邑誌」 風俗. “淳朴吾鄉亘古今\_觀察使權孟孫詩 素稱文明之鄉\_右尹金應相記”
- 87) 『慶尙道邑誌』(奎666) 10책, 「蔚山府邑誌」 風俗. “俗尙武藝\_觀風案 粟性剛毅 可以興文而易化\_河演記 ○埋鬼遊 ○馬頭戲”
- 88) 古稱淳厚 三韓以後無悖常亂紀之罪 尊賢尙德 崇學好禮 家藏墳籍 人務農桑 有先賢遺風 文康公張顯光鄉射堂記曰 邑名以仁素有美俗
- 89) 『輿地圖書』, 「長鬚」 “尙禮讓 崇儉素”
- 90) 『輿地圖書』, 「知禮」 “俗尙朴素 風存孝烈”
- 91) 『輿地圖書』, 「眞寶」 “地薄賦重 民貧俗儉”
- 92) 『輿地圖書』, 「昌寧」 “俗尙淳朴 多質少文”
- 93) 『慶尙道邑誌』(奎666) 6책, 「昌原府邑誌」 風俗. “俗尙儉素 謹於貢賦”
- 94) 『輿地圖書』, 「清河」 “尙文獻 講武藝 務耕織 好古朴”
- 95) 『河東郡邑誌』(奎10854) 6면 「風俗」 “尙儉率 民習淳厚無浮華之事 知好詩書 尙武藝 力農桑”
- 96) 『輿地圖書』, 「河陽」 “土瘠民貧 勤儉務農”
- 97) 『咸州誌』(奎 12249) 9면. 「風俗」 “俗尙儉率\_載勝覽 土慕禮義 謹於喪祭 民務農桑 兼販魚塙\_里風見下”
- 98) 『여지도서』, 「咸昌」 “俗尙文學”
- 99) 『輿地圖書』, 「玄風」 “土瘠民貧 俗尙儉素 金時習詩曰 玄風德化隆”
- 100) 『慶尙道邑誌』(奎666) 14책, 「興海郡邑誌」 風俗. “俗尙文教 講武藝 力農桑”

보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서 “절의를 숭상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며 벼슬 구하기[奔競]를 부끄럽게 여기고 겸소함을 숭상한다”고 하였다.<sup>101)</sup> 인동은 본래도 ‘절의와 겸소함을 숭상하는 고을’이었으나 그 유래와 연원을 끌어올리고 고을이 지닌 도덕적 면모를 더욱 구체화해서 “삼한 이후로 윤상을 어지럽히는 죄를 지은 이가 없었고 현자를 존중하고 덕을 숭상하며 학문을 숭상하고 예를 좋아하는, 선현의 유풍이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기장이나 동래, 김해와 같이 鄉禮, 鄉約, 洞契 등 풍속을 바꾸기 위한 지역의 노력들을 풍속조에 기술하기도 했다. 기장에서는 한 해의 끝 무렵 일을 하지 않을 때에 모여서 서로 경계하고, 상장제례는 술잔과 부의로 서로 조문하는 풍습이 있었고, 매년 봄과 가을에 노소가 모두 모여 동 단위에서는 東風으로 바로잡고 군 단위에서는 鄉約으로 바로잡는 풍습이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동래 지역의 풍속조에는 각 면마다 洞案을 두고 상하를 구별하였고, 동안에 들어간 이들이 매년 두차례 한 곳에 모여서 강회하고 서로 격려한다고 기술하였다. 동 단위에서 동약을 실천하며 상호간에 예교로 격려하였고, 이 내용을 고을 풍속조에 기술함으로써 풍속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김해에서는 읍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會老堂의 역사를 기술했다. 김해 지역에서 가야의 시조인 수로왕과 허왕후를 제사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고을인들이 함께 제사를 지낸 후 제삿밥을 회로당이라는 장소에서 모여 먹었다. 이 회로당에 ‘正風俗節目’ 즉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실행 규칙을 내걸고 강하였고, 이 내용에 따라 상호 규찰하고 상을 내려 격려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회로당의 ‘정풍속절목’이 김해 고을의 향약이었던 셈이다. 이 사라진 회로당을 읍지에서 다시 불러낸 이유는 분명하다. 회로당의 정신과 역할을 기억함으로써 김해의 현재와 미래에 다시 이러한 풍습이 등장하기를 바란 것이다.<sup>102)</sup>

101) 『安義邑誌』(奎10853) “崇節義 敬長老 恥奔競 尚儉素\_鄭文獻公汝昌 蔚縣導率葛川林薰諸賢輩出之後 風俗不變”

102) 김해 읍지의 풍속 항목에는 매년 4월 8일에 고을 아동이 무리지어 참여하는 石戰과 김해부 잇촌 사람들이 태종산에 올라가 제를 지내고 펼치는 脚戲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

관찬이나 사찬을 가리지 않고 경상도 지역의 거의 모든 읍지들은 19세기 초반 경 이미 자기 지역이 정조가 주장한 바와 같은 ‘순후한 풍속’을 가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읍지에 옛 풍속 기술의 흔적을 남겨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새로운 풍속과 대비되면서 변화를 두드러지게 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조선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바, 예제와 교육, 다스림을 통해 이익을 다투는 민간의 예속을 더불어 사는 삶을 우선하도록 점진적으로 바꾸려던 예교주의적 노력들의 결과일 수도 있다. 개인, 가문, 지역을 막론하고 그치지 않는 다툼으로 피폐해지는 현실 속에서도,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 도덕적 마음’이 없이 법제와 형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예교의 정치를 여전히 고수하려는 이들이, 여전히 지역과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예교주의의 가능성 즉 ‘예교의 바탕이 되는 선한 마음만을 보려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각 지역 읍지의 풍속 항목은 예교주의적 노력들의 성취 정도와 지속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였다. 조선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 사 모두 나라가 존속하는 마지막까지 고을의 풍속을 고을의 ‘治’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지표라는 관점을 버리지 않고 예교의 가늠자로서 풍속 항목을 서술하였다. 국초부터 국가 주도로 편찬된 지리지에는 ‘풍속’이 반드시 기술되어야 할 항목으로 주어졌고, 지방관들은 풍속을 관찰하고 기술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일부이면서 타 지역과 구분되는 일정 구역의 땅을 자기 정체성과 관련지었던 지역 인들도 ‘풍속’ 기술에 관심을 기울였다. 지역 지리지의 풍속 항목에 기술된 내용들은 각 지역이 시대가 이상으로 삼았던 문화적 기준들을 성취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다. 자인 읍지(1765년)에 있는 女圓舞(만력연간에 한 장군이라는 사람이 여원무를 베풀고 이를 구경하러 온 왜구들을 베어버렸다는 이야기와 그 고적이 고을에 전하는데, 이후로 이와 관련된 고을 제의와 공연이 지속되었다)나 언양 읍지(1832년)에 있는 馬頭戲에 대한 기술도 있다.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풍습들을 새롭게 풍속 기술에 추가시키기도 했다. 유교문화의 고장으로 자부했던 안동 지역에서도 석전이나 車戰(1745년 『영가지』에서 추가) 풍습을 읍지에 기술했다. 이렇게 오랜 조선 적 문명화 이후에도 읍지에 기술된 고을의 ‘민속’들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그리하여 외부와 내부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았다. 지역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은 '풍속'이 지리지의 범주로서 주어지고 관찰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변화는 '풍속' 항목이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 5. 맷음말

이상에서 조선시대 지방 읍지나 전국지리지의 '풍속' 항목의 변화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1425년 『경상도지리지』에는 풍속 항목이 없지만, 그 서두에서 경상도 66개 군현 풍속을 기술하였다. 문풍이 드높고 순후한 풍속을 가진 고을이라는 조선후기적 이미지와 달리, 상당수 고을이 무예를 중시하며 강하고 사납거나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경상도 지역 44개 고을의 풍속만 기술하였지만, 풍속 기술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 때 관찰한 고을 풍속은 고을 고유의 민속이라기 보다는 고을 전체가 가진, 타고나거나 자연스럽게 배어들어 있는 문화적 취향이나 품성이었다.

이후 전국지리지나 고을 읍지들에서도 풍속 기술들이 수정되어갔다. 지방지의 편찬자들의 풍속 기술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었다. 신유학의 인간과 사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을의 풍속을 바라볼 때 투영되었고, "검소하고 예의, 의리를 알고 학문을 알며 다투지 않는 문화"의 성취 여부가 풍속조 서술의 기준이 되었다. 다스림[治]은 단순한 관료 행정이 아니라 포괄적 교육으로서의 예교였고, 고을 풍속은 다스림의 방향을 가늠하고 성취를 평가하는 지표로 여겨졌다. 지역인들도 이익을 위해 다투다는 평가를 불명예로 여겼고, 인간 관계 속에서의 올바름[道義]을 중시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인정받고자 했다. 17세기 지역인에 의해 작성된 읍지에서는 이러한 신유학적 문명론의 기준에서 벗어난 기왕의 고을 풍속 기술에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고을 풍속을 바꾸는 경쟁은 전 도에 걸쳐서 일어났다.

각 지역 읍지의 풍속 항목은 예교주의적 노력들의 성취 정도와 지속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였다. 조선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 사 모두 나라가 존속하는 마지막까지 고을의 풍속을 고을의 ‘治’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꼭 필요 한 지표라는 관점을 버리지 않고 예교의 가늠자로서 풍속 항목을 서술하였다. 19세기 초반에 이르면 경상도 거의 모든 지역의 풍속 항목에서 사납고 다투는 이미지는 사라졌다. 각 고을들은 조선의 문명적 표준을 내면화했고,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삼았다.

1910년 고령 지역의 인사가 주도해서 편찬한 『高靈邑誌』에는 고령 지역의 풍속을 기록한 ‘토속’ 항목이 있다. 토속을 風氣, 性質, 志尚, 俗習 등으로 다시 구분한 후 고령 풍속의 변화상을 기술했다.<sup>103)</sup> 이 읍지 편찬자가 기술하고 있는 고령의 풍속에서는 이미 ‘강량’했던, 억세고 사납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지역의 이미지는 사라졌다. 오랜 시간에 걸쳐 분투하여 만들어낸 순박하고 고결한 지역의 이미지가 中古 이래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랬던 사실로써 이해되었다. 도리어 그것과 멀어진 당대의 풍속을 개탄하고 있다. 성질이 순박하다고 했으나 지금은 시기하고 어그러지며, 뜻이 승상하는 바가 고결하다고 했으나 지금은 비루하며, 속습이 전아하고 꾸밈이 없다고 했으나 도리어 방탕한 데로 흐르니 모두 옛날의 아름다움일 뿐이요 말류의 폐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19세기 말의 시점에서, 조선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성취하고자 했던 ‘문화’는 적어도 경상도 지역에서는 절대적 사실로써 내면화 되었다. 그들이 오래 전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문화적 특성은 도리어 배격 해야 할 것으로 주장되었다.

지리지 풍속조 기술된 지역의 이미지를 지배층에 의해 조작된 순치의 이미지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선시대에 공유된 이상적 ‘문화’의 이미지가 있고 공사간에 이를 전유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정치가 곧 교육이기도 했던 조선시대에 지방의 풍속은 지방의 사실로만 그치지 않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비추는 거울이자 가

---

103) 『高靈邑誌』(奎4157) 「土俗」.

늠자였다. 교육의 정치를 해나갈 바탕에 대한 관찰이기도 했다. 지방의 사민들 역시 단지 예교의 대상이 아니라 예교의 주체이기도 했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풍속 조 기술을 바꾸었고, 사실로써 내면화했다.

논문투고일(2018. 5. 11), 심사일(2018. 5. 21), 개재확정일(2018. 6. 5)

## 참고문헌

### 1. 자료

- 『日省錄』
- 『朝鮮王朝實錄』
- 『弘齋全書』
- 『新增東國輿地勝覽』
- 『輿地圖書』
- 『慶尙道地理志』(奎 10007)
- 『慶尙道續撰地理志』(奎 10008)
- 『咸州誌』(奎 12249)
- 『晉陽志』(古 4790-17)
- 『一善誌』(奎 15484)
- 『基川誌』(古4799-5)
- 『竹溪志』
- 『平壤志』(古 4790-2)
- 『嶺南邑誌』(奎12174)
- 『金山郡邑誌』(想白古 915.15-G336)
- 『金海府邑誌』(奎17442)
- 『東萊府誌』(奎11904)
- 『三嘉邑誌』(奎21846)
- 『慶尙道邑誌』(奎666)
- 『河東郡邑誌』(奎10854)
- 『安義邑誌』(奎10853)
- 『高靈邑誌』(奎4157)

### 2. 논저

- 양보경, 1987 「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박사학  
위논문.
- \_\_\_\_\_, 1987 「조선시대 사찬읍지 편찬에 대한 연구」『국사관논총』 81.
- 배우성, 1996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한국학보』 85.
- 서인원, 2002 「조선초기 지리지 연구-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혜안.

- 노영구, 2007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역사와 현실』 64.
- 양진석, 2013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의 추적」『규장각』 43.
- 박 주, 2016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 김태웅, 2017,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승람의 읍사 자료 비교 활용」, 『규장각』 51.
- 김 호, 2017 「17세기 초 예안 사족 김광계의 접빈객과 일상정치」『일기를 통해 본 양반들의 일상세계』, 새물결.
- Peter K. Bol, 2001, "The Rise of Local History: History, Geography, and Culture in Southern Song and Yuan Wuzhou",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61, No.1.
- Joseph Dennis, *Writing, Publishing, and Reading Local Gazetters in Imperial China, 1100-1700*, Ha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5.

## 〈부 록〉

〈표 4〉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기술 풍속 내역

군현명	1425년 경상도자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풍속조
개령	俗尙侈靡力農	×	
거제	俗尙儉率	○	
거창	俗尙強狼	○	
경산	俗尙儉率	○	
경주	俗尙淳儉 力農好學	○	① *
고령	俗尙強武力農	○	
고성	俗尙儉率	○	
곤양	俗尙儉率	○	
군위	俗尙儉率	○	② 김극기의 시 註에 俗尙淳質 雖邑豪荷鋤携未 皆勤於 農事 豪家婦女 未嘗服羅綺
기장	俗尙武藝	×	
김산	俗尙華麗 力農 善女功	×	
김해	俗尙強簡 力農好學	○	③ 俗尙強簡/[신증]石戰
대구	俗尙儉率務蠶桑	×	
동래	俗尙恭儉	×	
문경	俗尙儉率	×	
밀양	俗尙力農好學 然好鬪爭	○	④ 尚華侈/農勤于壘
봉화	俗尙節儉 務蠶桑	○	
비안	俗尙愚頹	○	⑤ 民淳俗儉
사천	俗尙武藝	○	
산음	俗尙簡質	○	
삼가	俗尙强悍	○	
상주	俗尙簡齋 好學問	○	⑥ 俗尙簡齋 民風淳朴
선산	俗尙華麗 好學問	○	⑦ 俗尙文學 民風淳朴
성주	俗尙華麗 崇文好武 善女功	○	⑧ 俗尙華麗[자리지: 俗尙華麗好應犬] 善女功[관풍안]
순흥	俗尙勤儉	×	
신녕	俗尙儉率	×	
안동	俗尙務農桑 重禮讓且節用	○	⑨ 尚勤儉務農桑/務本節用/勤儉忠義/夫耕婦蠶曲車背筐 /俗古民淳/[신증]石戰
안음	俗尙强悍 好鬪爭	○	
양산	俗尙強戾力農	○	⑩ *
언양	俗尙強儉力農	×	
영덕	俗尙武藝	×	
영산	俗尙平易	×	

영일	俗尙儉率	x	
영천/영주	俗尙儉率務蠶桑	○	⑪ 俗尙儉率/民物富庶
영천/영천	俗尙平易 好學問	○	⑫ 俗尙平易
영해	俗尙武藝 好歌舞	○	⑬ 家畜絲桐 人工操縵
예안	俗尙節儉 務蠶桑	○	⑭ 俗尙節儉[관풍안]/ 地偏土薄[召효정동루시]
예천	俗尙平易	○	⑮ 俗尙平易[관풍안]/閭巷無薄俗[이지강시]
용궁	俗尙和睦	○	
울산	俗尙武藝 好商賈	○	⑯ 俗尙武藝 好商賈[관풍안]/稟性剛毅 可以興文而易化[하연기]
의령	俗尙强悍	○	
의성	俗尙儉 務蠶桑	○	⑰ 尚儉率務蠶桑:관풍안/ 居民淳朴:조서강시/任載用曲車
의흥	俗尙鈍朴	○	
인동	俗尙節儉 務蠶桑	x	
장기	俗尙强悍	x	
지례	俗尙儉率	x	
진보	俗尙儉率	x	
진성	俗尙強武	x	
진주	俗尙強敏富麗 崇文好武	○	⑱ 俗尙詩書 尚富麗: 자리지/ 閭闈熙熙煙火想望: 河嵩의 疏石樓記/ 好學爲業: 河演 四教堂記/ 農夫蠶婦服其勤 孝子子孫竭其力: 河嵩 疏石樓記
진해	俗尙儉率	○	
창녕	俗尙氣概 好學問	x	
창원	俗尙蠶暴 爭訟力農	○	⑲ 俗尙蠶暴健訟: 자리지
청도	俗尙儉率 務蠶桑	○	俗尙儉率
청송	俗尙儉率	○	⑳ 俗尙儉率: 관풍안/ 民淳俗厚: 洪汝方讚 慶樓記
청하	俗尙武藝	x	
초계	俗尙儉率力農	x	
칠원	俗尙儉率	○	
풍기/기천	俗尙強狼	○	
하동	俗尙儉率	○	
하양	俗尙儉率	x	
함안	俗尙儉率	○	
함양	俗尙謹壓力農	○	俗尙謹愿
합창	俗尙強嗇	x	
합천	俗尙儉率力農	○	尙儉率
현풍	俗尙儉嗇	x	
홍해	俗尙武藝	x	

**Abstract**

The Standard of Neo-Confucian Enlightenment  
– A Reading “*Customs*” chapters of Local Gazetteers of Gyeongsang-do  
Province in Joseon Dynasty –

Kim, Ji young

In the *Gyeongsang Prefectural Gazetteers* (“*Gyeongsang-do Jiri-ji*”) published in 1425, there are references to all kinds of customs and living practices observed by the population of Gun towns and Hyeon counties within the Gyeongsang-do province. Such description marked the first time ever (or at least the earliest example that we can find today) for such elements of the people’s lives to be meticulously recorded, and interestingly enough, it conveys Joseon people’s lives which apparently were quite different from what we know today through the remarks of the Joseon people who lived in the dynasty’s later periods.

Many of these towns and counties are depicted as areas full of people who considered martial arts very important and at the same time were rather fond of the idea of being strong, fierce, and fight or quarrel with others too. Then, this particular image continued to tone down and change inside later incarnations of either local gazetteers or dynastic geographies. The compilers of these local gazetteers or dynastic geographies criticized the prior habits or attitudes of fighting each other for survival and wanted to encourage people to live and coexist with each other peacefully and harmoniously. They reflected their such intentions in all the Customs chapters inside local gazetteers they compiled. The new local gazetteers came to feature a Neo-Confucian perspective and thus described not only people but also the society and politics accordingly.

The local residents themselves wanted to be viewed as people who were trying to do the right thing and not just things that would serve their own interests. Local gazetteers

compiled by local people in the 17th century had a tendency of severely criticizing previous ways of life which they deemed as have deviated from the civil notion of Neo-Confucian enlightenment. Eventually, it became a race for local regions to change their living habits faster than others. And as a result, in the early 19th century, such quarreling and fierce images were gone. Each of those local areas embraced Joseon's civil standards, and made them part of their identity.

**Key words :** Local Gazetteer, Customs, Gyeongsang-do Province, Joseon's Civil Standards, Neo-Confucianism